

러시아의 축산 동향*

윤명중

곡물 수출입금지 조치의 영향을 비롯하여 최근 러시아의 주요 작목별 생산 및 축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2010년에 심각한 가뭄피해로 인해 2010년 8월 15일부터 2011년 6월말까지 곡물에 대한 수출입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곡물 수출입금지 조치의 영향을 비롯하여 최근 러시아의 주요 작목별 생산 및 축산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곡물 수출금지 조치

러시아 정부는 2010년 8월 15일부터 동년말까지 곡물(소맥, 보리, 호밀, 옥수수, 밀가루 등)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속되는 가뭄으로 2011년 6월말까지 소맥분과 호밀분을 제외한 곡물에 대한 수출입금지가 연장되었으며, 곡물작황이 회복됨에 따라 동년 7월부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러시아의 곡물생산은 2008년에 1억 820만 톤, 2009년 9,71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풍작을 기록하였지만 2010년에는 6,100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농업성은 2011년 7월 현재 양호한 기후로 인해 2011년 곡물수확량이 8,500~9,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의 곡물 생산량 감소는 국내 곡물수요량이 연간 7,500만 톤, 동년 7월 초 재고량이 2,400만 톤임을 고려하여도 겨울과 봄에 수확할 곡물의 종자부족량이 1,330만 톤, 사료곡물은 약 1,33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입금지

* 본 내용은 주일본한국대사관의 윤명중 농무관이 농축산업진흥기구가 11월호에 발표한 “일본의 축산정보”를 번역하여 작성하였다(mosanjai@nate.com, 03-3225-8667).

조치가 취해졌다. 지역별 수요량에 대한 재배분과 식용을 종자용으로 전환하는 등 곡물 생산량 감소 노력을 통한 국내 수요를 충족가능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가축의 대량도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USDA는 러시아의 밀과 사료용 곡물의 수요량에 대하여 2011년 7월에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표 1 러시아의 밀과 사료용 곡물 수요량 추정치

단위: 100만 톤

	2009/10	2010/11	2011/12
밀	19.00	18.50	18.00
조립곡물	20.72	10.73	16.83
계	39.72	28.27	37.83

자료: USDA

러시아의 수출입금지 조치 배경에는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의 밀 가격은 저렴하여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이 주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밀 가격의 상승은 ‘중동의 봄¹⁾’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이다. 수출입금지 조치 이후 러시아 국내 톤당 밀 가격은 국제수준보다 100~120달러 낮았다. 러시아의 사료·축산 관계자는 수출입금지 조치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반면 곡물 생산자들은 국제가격 상승에 의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2. 농업생산 동향

1) 농업 개황

가격 대비로 본 러시아의 농업생산성은 1990년을 100으로 할 때 1995년 66.9, 2000년은 60.7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5년에 68.1, 2010년에는 71.3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부문은 경작부문보다 하락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농업생산액 구성이 경종 37%, 축산 63%였던 것에 비하여 2008년에는 경종 53.1%, 축산 46.9%로 축산부문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축산부문은 농촌에서 중요한 고용시장으로 축산부문의 생산액 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농촌지역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료용 곡물의 파종면적과 수확량 감소, 목초지와 방목지의 이용저하로 인한 황폐지 증가 등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위기적인 상황을 야기하였다.

러시아의 농업생산성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0년에는 60.7, 2005년에 68.1, 2010년에는 71.3으로 나타났다.

1) 2010~2011년에 걸쳐서 중동·아랍지역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표 2>는 영농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요 품목별 수익률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는 30~35%의 수익률이 필요하다.

표 2 농업기업이 판매하는 품목별 농업생산물의 수익률

항 목	199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곡물(옥수수 포함)	185	16	27	57	37	9.3	8.9
사탕용 사탕무	26	16	28	8	13	39.7	16.7
해바라기	145	47	36	103	62	49.3	78.4
감자	24	32	41	40	40	32.7	29.9
야채(노지)	42	31	30	38	22	19.0	30.7
우유·유제품(우유·환산)	56	18	19	25	25	5.0	18.8
식육							
쇠고기	22	△19	△14	△18	△22	△23.3	△24.2
돈육	23	20	21	7	11	24	23.6
양·산양육	40	15	14	18	8	△4.2	△0.04
가금육	29	19	15	14	7	17.5	10.3
계란	51	20	17	21	17	20.2	12.7
양모	25	△63	△69	△64	△64	미공표	미공표

주: 1) △은 손실
2) 가공생산물을 포함

자료: 러시아 통계국 「러시아통계연감 2009」, 2009년 및 2010년에는 농공컴플렉스지(2010.3) p14.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대부분 품목의 수익률 변동도 크게 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농업이 시장경제 이행과정에서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쇠고기는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양·산양육도 2009년부터 손실을 내어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돈육, 가금육은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그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한편, 경종부문에서 해바라기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곡물과 사탕무의 변동은 큰 편이지만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공동농업조직(구 소련의 집단농장인 콜호즈와 국영 농장인 소호즈를 계승한 것)은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곡물인 해바라기, 사탕무 경작에 집중하고 있으며, 손실이 나는 쇠고기 부문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공동농업조직의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률을 살펴보면, 2007년은 8.1%, 2008년은 2.3%, 2010년은 -1.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농업경영 수익률과 지속적인 불안정한 상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농업생산물의 판매가격은 8,000배였는데 비하여 농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 서비스 가격은 4만 6,000배 상승하게 되어 가격관계에서 농업이 크게 불리하게 되었다.

이는 공동농업조직의 농기계의 구입량과 보유대수 감소, 노후화를 초래하고 있

공동농업조직의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률을 살펴보면, 2007년 8.1%, 2008년 2.3%, 2010년 -1.7%로 나타났다.

다. 예를 들면 1992년부터 2010년에 걸쳐 공동농업조직의 농기계 보유대수(연말)의 감소율은 사료수확용 콤바인이 83.3%, 예취기 80.2%, 착유용 기계 및 설비가 74.1% 이었다.

둘째,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지원의 주요 지출항목은 장단기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과 우량가축의 도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현재 가격수준으로 보면 연방정부의 농어업 지출액은 2008년에는 580억 루블, 2009년 831억 루블, 2010년 353억 루블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셋째, 농촌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농업조직(2008년에 평균 파종면적은 2,800ha, 소 사육두수는 571두, 종업원 128명)의 47%만이 농장 내 포장된 도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2) 경종부문

2010년 경종부문의 파종면적은 1990년 대비 4,252만 ha가 감소한 7,383만 ha로 나타났다. 감소면적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지면적을 합한 면적에 해당된다. <표 3>는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나타낸 것이다. 곡물의 수확량은 2008년과 2009년 연속적으로 풍작을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8,500만~9,000만 톤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010년 경종부문의 파종면적은 1990년 대비 4,252만 ha가 감소한 7,383만 ha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품 목	199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확량 (100만 톤)	밀	46.2	47.6	44.9	49.4	63.8	61.7	41.5
	쌀보리	13.9	3.6	3.0	3.9	4.5	4.3	1.6
	옥수수	2.1	3.1	3.5	3.8	6.7	4.0	3.1
	보리	27.0	15.7	18.0	15.6	23.2	17.9	8.4
	귀리	11.2	4.5	4.9	5.4	5.8	5.4	3.2
	수수	1.5	0.5	0.6	0.4	0.7	0.3	0.1
	메밀(1,000톤)	1,038	605	865	1,004	924	564	339
	쌀(1,000톤)	754	571	681	705	738	913	1,061
	두류	3.1	1.6	1.8	1.3	1.8	1.5	1.4
ha당 수확량 (100kg)	밀(가을밀)	26.5	28.3	28.0	28.1	33.9	29.0	24.9
	(봄밀)	13.9	13.0	14.3	15.6	15.6	17.2	12.9
	쌀보리	18.5	15.7	17.1	19.2	21.2	20.7	11.9
	옥수수	29.0	38.5	36.2	29.3	38.6	35.3	30.0
	보리(가을)	34.7	32.4	36.3	38.6	41.2	36.7	37.4
	보리(봄)	18.3	17.3	18.0	17.4	23.3	22.1	14.8
	귀리	14.4	14.4	14.7	16.3	17.1	17.9	14.4
	수수	9.1	11.2	10.4	11.2	13.8	10.0	7.8
	메밀	6.7	7.3	8.1	8.4	9.2	9.0	5.9
	쌀	30.3	42.0	43.9	45.1	46.0	51.4	52.8
	두류	14.2	15.4	16.0	14.1	18.4	16.5	13.9

자료: 러시아 통계국, 「숫자로 본 러시아, 2011」

<표 4>는 품목별 곡물의 수확량과 단위면적당 수확량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2년과 2010년 동안 수확량의 변화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 전체의 감소율은 42.9% 수준인데 비하여 옥수수는 47.6% 증가하였다. 또한 밀은 10.2%, 사료곡물인 보리는 68.9%, 귀리는 71.4%, 두류는 54.8% 감소하였다.

표 4 품목별 곡물의 수확량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품 목	199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확 량(100만 톤)							
곡물(조제후의 총량)	106.9	77.8	78.2	81.5	108.2	97.1	61.0
사탕용 무(공장용)	25.5	21.3	30.7	28.8	29.0	24.9	22.3
유류용 해바라기	3.1	6.5	6.7	5.7	7.4	6.5	5.3
대두(1,000톤)	505	686	805	650	746	944	1,222
유채	164	304	522	630	752	667	670
아마(1,000톤)	78	56	36	47	52	52	35
감자	38.3	28.1	28.3	27.2	28.3	31.1	21.1
채소	10.0	11.3	11.4	11.5	13.0	13.4	12.1
과실(딸기류 및 포도)	3.4	2.7	2.2	2.8	2.7	3.1	2.5
ha당 수 확 량(100kg)							
곡물(조제후의 총량)	18.0	18.5	18.9	19.8	23.8	22.7	18.3
사탕용 무(공장용)	192	282	325	292	362	323	241
유류용 해바라기	11.6	11.9	11.4	11.3	12.3	11.5	9.6
대두(1,000톤)	8.5	10.5	9.9	9.2	10.5	11.9	11.8
봄 유채	10.5	11.0	10.7	10.4	10.4	9.3	6.8
가을 유채	16.3	17.7	16.0	15.6	17.6	18.2	19.0
아마	3.1	6.3	16.0	15.6	17.6	18.2	8.2
감자	114	121	10.7	10.4	10.4	9.3	10.0
채소	145	175	173	179	196	199	180

자료: 러시아 통계국, 「숫자로 본 러시아, 2011」

3) 축산 부문

육우, 돼지, 양의 사료요구율은 선진국보다 1.5~2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사료의 양이 부족하고, 낮은 품질 때문이다. 축산에서 사료는 전체 비용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사료에서 곡물 비율은 약 1/3을 차지한다. 사료용으로 연간 3,600만~3,900만 톤의 곡물이 소비되며, 그 중에서 배합사료로 가공되는 것은 1,200만 톤에 달한다.

육우, 돼지, 양의 사료요구율은 선진국보다 1.5~2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사료의 양이 부족하고 낮은 품질 때문이다.

(1) 고품질 국산배합사료의 생산이 절실

최근 20년간 조사료 및 다즙사료의 생산은 1/4 수준으로, 최근 5년간은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건초, 사일리지, 엔시레지의 단백질 함유량 기준은 15%이지만 실제 함유량은 10~12% 수준이다. 사료 중 단백질 부족은 180만 톤 이상으로, 그

중 조사료, 다즙사료에서 11만 톤, 농후사료에서 80만 톤이다. 이로 인해 조사료, 다즙사료, 농후사료의 30~50%가 초과급여로 보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발전에서 필요조건은 국내의 고품질 배합사료의 생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용 곡물 외에 글래스밀(Grass Mill), 사료용 근채류, 조사료, 다즙사료의 생산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료 품질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5>는 가축 사육두수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소와 젖소의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산양의 사육두수는 2007년 이후 현상유지 상태이다. 돼지 사육두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2010년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가금 사육두수는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가축 사육두수(연말기준)

단위 : 100만두수

연도별	소		돼지	양산양	가금류
		젖소			
1992	52.2	20.2	31.5	51.4	660
2005	21.6	9.5	13.8	18.6	357
2006	21.6	9.4	16.2	20.2	375
2007	21.5	9.3	16.3	21.5	389
2008	21.0	9.1	16.2	21.8	405
2009	20.7	9.0	17.2	22.0	436
2010	20.0	8.8	17.2	21.8	(미공표)

자료: 러시아 통계국, 「숫자로 본 러시아, 2011」, 「러시아통계연감, 2010」

(2) 쇠고기의 생산량은 감소, 가금육은 증가 추세

<표 6>, <표 7>은 주요 축산물의 생산과 품목별 식육생산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금육의 생산량은 2배, 돼지고기는 47%, 양·산양고기는 20% 증가하였다.

식육의 구성비를 1992년, 2005년, 2010년으로 나눠 살펴보면 쇠고기는 44%, 36%, 24%로 감소한 반면, 가금육은 17%, 28%, 4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돈육은 34%, 31%, 33%로 2005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며, 양·산양육의 생산량은 4%, 3.1%, 2.7%로 감소하였다.

표 6 주요 축산물의 생산량

	199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식육(도체중량,100만 톤)	8.3	5.0	5.3	5.8	6.3	6.7	7.1
우유(100만 톤)	47.2	31.1	31.3	32.0	32.4	32.6	31.9
계란(10억 개)	42.9	37.1	38.8	38.2	38.1	39.4	40.6
양모(1,000톤)	179	49	50	52	53	55	(미공표)

자료: 러시아 통계국, 「숫자로 본 러시아, 2011」

표 7 품목별 식육 생산량(전 경영 유형, 연말기준)

단위 : 1,000톤

연도별	식육	품목별			
		쇠고기	돈육	양산양육	가금육
1992	8,260	3,632	2,784	329	1,428
2005	4,990	1,809	1,569	154	1,388
2006	5,278	1,722	1,699	156	1,632
2007	5,790	1,699	1,930	168	1,925
2008	6,268	1,769	2,042	174	2,217
2009	6,719	1,741	2,170	183	2,555
2010	7,088	1,707	2,301	188	2,824

자료: 러시아 통계국, 「숫자로 본 러시아, 2011」

(3) 양계부문은 전문기업에 생산 집중

가금육의 소비자 가격은 돈육의 52%, 쇠고기의 54%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가금육 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양계부문은 전문 기업에 생산이 집중되어 가금육의 87%, 계란의 76%를 생산하고 있다.

양계의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중은 70% 이상이지만 사료의 품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금용 배합사료에는 곡물 65% 중 밀 26%, 옥수수 23%, 보리 6%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양계용 사료에 옥수수는 필요량의 90%만 공급되고 있으며, 두류와 수입 박류를 포함한 유박은 50% 수준이다. 양계의 사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6%의 유박이 더 필요하다.

(4) 돈육생산은 공업형태의 설비로 증가

2005년 이후 돈육 증산은 주로 공업형태의 생산설비의 증설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의 증체량 100kg당 사료급여량은 사료단위 기준으로 EU가 360kg, 미국이 410kg인 데 비하여 러시아는 556~820kg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낮은 사료의 품질 때문에 많은 양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육우생산성은 개발도상국 수준

육우 생산성은 선진국의 1/2~2/3로 낮은 수준이다. 전문화된 시설에서 사육되는 육용우의 사육두수는 1% 미만이다.

(6) 농민경영에 의한 사육두수 증가

가축 사육두수는 1992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소 61.7%, 돼지 45.4% 감소하였다. 2006년 농업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축사 사용률은 소가 72%, 돼지가 70%에 불과하다.

소 사육 두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농민경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7년 122만 두에서 2010년에는 143만 두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 경영형태에서 차지하는 농민이 경영하는 소 사육두수의 비율도 2007년의 5.7%에서 2010년에는 7.1%로 상승하였다.

(7) 러시아는 축산물 수입대국

<표 9>는 러시아의 식료 및 농산원료(섬유를 제외)의 무역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에는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러시아의 식료 및 농산원료(섬유 제외)의 무역동향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계 : 10억 달러	105	243.8	303.6	354.4	471.6	303.4	400.1
수입계 : 10억 달러	44.9	125.4	164.3	223.5	291.9	191.8	248.7
식료 및 농산원료(섬유제외)							
수출 : 10억 달러	1.6	4.5	5.5	9.1	9.3	10.0	8.8
수입 : 10억 달러	7.4	17.4	21.6	27.6	35.2	30.0	36.4
수출(1,000톤)							
밀	594	10,348	9,724	14,513	11,764	16,827	11,848
수입(1,000톤)							
신선·냉동식육(가금육제외)	517	1,340	1,411	1,489	1,711	1,438	1,442
신선·냉동 가금육	694	1,329	1,283	1,295	1,224	986	638
신선·냉동 어류	328	787	686	870	881	795	792
버터	70.8	133	165	123	140	125	134
감귤류	473	953	1,187	1,260	1,288	1,280	1,487
커피	20.6	40	56	65	76	89.3	102
곡물	4,677	1,449	2,313	1,067	959	432	444
해바라기유	150	131	100	132	112	43.4	114
식육제품 통조림	26.1	42	35	41	49	40.7	41.3
조당(raw sugar)	4,547	2,893	2,629	3,413	2,418	1,252	2,086
백당	467	625	350	296	165	259	285
알콜 및 비알콜음료(100만 톤)	422	1,528	1,514	2,253	2,619	1,790	2,263

자료: 러시아 통계국, 「숫자로 본 러시아, 2011」

4. 심각한 농촌문제

1) 경제발전에서 제외된 농촌지역

러시아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으며,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도시가계의 62.2% 수준으로 농촌인구 중 42%는 빈곤자이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파종면적이 4,242만 ha 감소하였다. 또한 1992년에서 2010년 사이 가축 사육두수의 감소율은 소 61.7%(젖소 56.4% 포함), 돼지 45.4%, 양·산양이 59.6%로 감소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에서 공동농업조직의 평균 임금(2010년 월 평균 10,573루블=약 39만 1,941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의 95%에서 2010년에는 49.9%로 하락하였고 2010년 농촌지역의 실업률은 10.8%로 도시지역의 실업률인 5.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농촌가계의 1인당 가처분 소득(현물지급 포함)은 도시가계의 62.2% 수준이며 농촌인구 비율은 27%로 이 중 42%는 빈곤자이다. 양질의 상수도 공급은 농촌주민의 2/5 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자 100명 이하인 마을은 상업과 생활서비스(세탁소 등)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이동판매차만이 다닐 정도이다. 또한, 농촌마을의 1/3은 비포장도로이며, 의료수준은 인구 1만 명 당 병상수는 도시지역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2) 인프라 정비 급선무

계획경제 시대의 콜호스와 소호조는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공동체로서 기능하였지만, 공동농업조직은 파산하거나 생활 서비스(매점, 세탁소, 이발, 각종 수리작업, 집회소, 공동식당 등)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농업생산 측면에서도 농민경영이나 주민경영의 역할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민경영이나 주민경영을 포함한 신용, 구매, 판매, 생활서비스, 가공 등 전 부분 혹은 일부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5. 결론

러시아 농업장관인 스크루이니키는 2010년 심각한 가뭃피해가 예상되지 않던 시기에 “러시아는 향후 10~15년 내에 곡물생산량이 1억 2,000만~1억 2,500만 톤, 곡물수출량이 3,000만~4,000만 톤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3년까지 가금육과 2015년까지는 돈육에 대하여 자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러시아는 곡물의 수출확대와 가금육과 돈육의

러시아는 4,200만 ha에 이르는 경작포기 면적과 홀딩(holdings)의 출현, 기업의 기계 및 설비 등의 현대화 투자로 인해 곡물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높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급을 달성이라는 2가지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였지만, 2010년 가뭄으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세계 인구의 증가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곡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곡물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로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경작 포기 면적이 4,200만ha에 이른다. 이는 자연조건이 유사한 캐나다에 비해 러시아의 단위면적당 수량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작부의 증대,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같이 양호한 영농조건을 가진 국가는 곡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수출 포함), 판매 등의 수직적 통합을 도모하는 홀딩(holdings, 수직통합주체)이 출현하여, 기업의 기계 및 설비 등의 현대화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곡물수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곡물의 보관, 수송, 항만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풍흉에 따른 변동, 자국이익 우선 정책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수출이 궤도에 올라 그 혜택을 곡물생산농가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해 곡물생산증가와 그 이용효율 향상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곡물 수출국으로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앞으로 러시아의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정보 2011년 11월호.